



오세아니아, 자연재해 재보험 동향

장윤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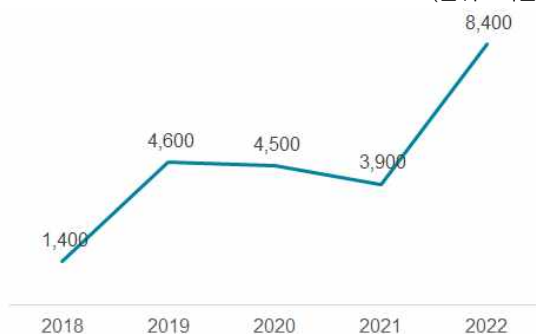
요약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음. Aon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원수보험회사는 재보험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보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 그 결과 재보험요율이 상승하고 있고 원수보험회사는 보유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손실발생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재보험시장의 경성화는 일부 지역기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4년간 자연재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태풍과 홍수로 약 84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르는 피해액과 약 25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함
- 뉴질랜드는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태풍 및 홍수 피해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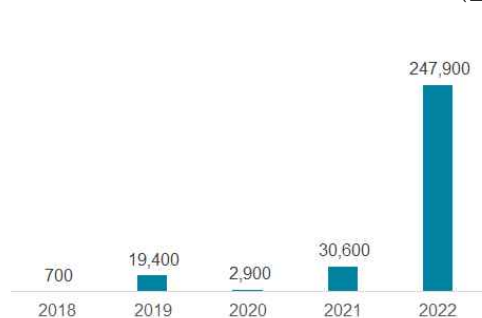
〈그림 1〉 호주 및 뉴질랜드의 자연재해 피해액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 호주 및 뉴질랜드의 자연재해 피해자 수

(단위: 명)



자료: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자료: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 글로벌 보험중개회사 Aon의 보고서¹⁾에 따르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원수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보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은 피해액에 더해 최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손실액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 Aon(2023. 7), "Reinsurance Market Dynamics-June and July 2023"; 이하의 내용은 모두 동 보고서를 인용함

- 7월 재보험 갱신 시기에 따라 원수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재보험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희망수준의 갱신 조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호주 정부는 2022년 국가 차원에서 ‘태풍 재보험풀(Cyclone Reinsurance Pool)’²⁾을 시행하며 자연재해 재보험 담보 공급을 늘렸지만 현재까지는 자연재해 재보험 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부 정도만 완화했다고 평가됨

○ 그 결과 재보험요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원수보험회사는 보유수준을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손실개시점(Attachment point) 또한 상향조정됨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손실액 증가로 2023년 재보험요율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임
- 원수보험회사는 자기책임부담인 보유한도를 높이고 있고 그에 따라 원수보험회사의 손실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손실개시점 또한 상향조정됨
- 2022년의 경우 원수보험회사가 다소 높은 보험요율을 부담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낮은 수준의 손실개시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 들어서는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며 손실개시점이 전반적으로 상향됨

○ 재보험회사는 일부 자연재해 관련 담보 제공을 꺼리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확률을 재조정하며 위험을 관리함

-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보험회사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손실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지만 발생빈도수가 높고 위험 모델 측정이 어려운 산불, 해일, 홍수와 같은 2차피해에 관해서는 담보 제공을 꺼리고 있음
- 재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사고발생빈도수를 재평가하며 손실개시점을 초과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순환기간(Return period)을 높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있음
 - 예를 들면 재보험회사는 기존에 3년에 한 번 정도 손실개시점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 모델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6년에 한 번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 재보험시장 경성화가 지속될 경우 지역기반의 소규모 원수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

- 올해 들어 뉴질랜드에서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호주 및 뉴질랜드 재보험시장에서는 원수보험회사의 보유분과 보험요율이 상승하는 등 재보험시장의 경성화가 지속되고 있음
- 대다수의 원수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³⁾ 등의 방식으로 대재해와 무관한 재보험을 구매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거나 자본경감을 적용받기 위한 다양한 재무기술을 활용함
- 그러나 소규모 지역기반의 원수보험회사는 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련의 재보험 시장 환경변화는 이들 기업의 위험인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본여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2) 태풍 재보험풀은 태풍 피해로부터 가계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태풍의 취약지역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00억 호주달러(약 8조 원)의 보증을 제공함

3) 비례재보험특약은 원수보험회사가 인수계약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함